

산림청 "기상 상황 양호…공세적 진화 중 "

난폭한 세계를 지탱하는 ‘조심하는 마음’…황정은 ‘백의 그림자’

입력 2022.02.06 (21:25) | 수정 2022.02.09 (17:28)

뉴스 9

가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우리 시대의 소설  
황정은 <백의 그림자>

KBS  
뉴스 9

위기의 제조업…40년 장기 기업도 “올해가 더 걱정”

[앵커]

KBS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함께 선정한 소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6일)은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도시에서 인물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이어가는데요.

작가가 그리는 따뜻한 연대와 사랑, 이유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오래된 전자상가.

낡은 건물 안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재용/세운상가 상인 : "6월 되면 쫓겨나요. 집주인이 나가래요. 안타깝다고 하나, 아깝다고 하나…."]

- 이 시각 헤드라인
-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보다 3.5%p ↑
-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코로나19 현황

Ultimate Game Changer  
28.22 대통령선거

-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보다 3.5%p ↑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황정은의 첫 장편소설 '백의 그림자'는 바로 이런 공간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황정은/소설가 : "한 사회가 '슬럼'이라는 말로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구석으로 몰아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정든 상가가 철거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음향기기 수리사, 빛에 시달리던 가장, 산업재해로 남편을 잃은 아내….

저마다의 사연으로 절망하는 소설 속 인물들은 어느 날 '그림자가 일어서는'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가 낭독/황정은 '백의 그림자' 中 : "묵묵히 생각에 잠긴 무재씨의 뒤통치로부터 짙은 빛깔로 늘어진 그림자가 주변의 것들과는 다른 기색으로 곧장 별판을 향해 뻗어 있었다."]

[황정은/소설가 :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때, 무기력할 때, 그럴 때 '그림자가 일어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 뉴스 : "경찰은 사방에서 물대포를 쏘며 철거민들을 압박해 나갑니다."]

소설을 쓰던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을 목격한 작가가 떠올린 건, 역설적이게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조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황정은/소설가 : "현장의 참혹함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마음,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 세상에 보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열심히 썼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에게 전구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는 전구가게 '오무사' 주인처럼, 폭력적인 세상을 향해 분노나 적개심을 드러내는 대신, 순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소설 속 인물들.

주인공 '은교'와 '무재'도 버거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돌보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갑니다.

[내레이션/황정은 '백의 그림자' 中 : "나는 채굴이 반듯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아합니다. (채굴을요?) 은교씨를요. (나는 채굴이 하나도 반듯하지 않은데요.) 반듯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좋은 거지요."]

[정홍수/문학평론가 : "'은교'와 '무재'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가 응원하고 싶고, 이 사람들의 사랑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 면에서 아마 최고의 사랑 소설, 그런 소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섬에서 길을 잃고 '노래할까요'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

소설이 세상에 나온 지 13년이 흐른 지금도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작가는 여전히 사랑과 연대의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황정은/소설가 : "(두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네,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밤길에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목격했을 것이고,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문자그래픽:임희수

Ultimate Game Changer  
28.12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  
NEWS

N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이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  
기



오늘의 HOT클릭!

○○선거투표장

1. 오 달 | 백운출

2. 홍 달 | 양영희

3. 백 달 | 장인호

4. 정 달 | 최만영

5. 무소속 | 김익환

○○선거투표장

1. 오 달 | 백운출

2. 홍 달 | 양영희

3. 백 달 | 장인호

4. 정 달 | 최만영

5. 무소속 | 김익환

투표제1투

아름다운 선거, 행복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울진·삼척 산불 옛새째...전체 진화율 70%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